

방산 新시장 개척을 위한 SWOT 기반 남미 수출 전략 연구 -페루, 브라질 방산협력을 중심으로-

신기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A Study on the Export Strategy of South America Based on SWOT Analysis for Pioneering of New Market in Defense Industries -Based on Peru and Brazil Defense Industries Cooperation-

Ki Ho Shi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요 약 방위산업은 국가 기술력이 총괄적으로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잠수함 1척(1800t급, 약, 4,500억 원)을 수출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중형차 2만 4천여 대를 수출했을 때와 동일한 파급력을 나타내며 고성능 유도미사일 한 발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방위산업은 지난 50년간 수요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시장구조에 고착화 되었으며 현재의 방산 내수시장은 포화되어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산업 수출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 방위산업 수출시장 또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방위산업 수출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新 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미국가 대상 新시장 개척을 위해 2021년 10월에 시행한 페루, 브라질 공무 국외출장 결과와 페루와 브라질을 분석한 공개 자료를 토대로 페루, 브라질 방위산업 수출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페루와 브라질 대상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협력을 위한 SWOT 분석 및 추진전략과 협력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남미 新시장 개척을 위한 방위산업 수출 관련 정책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defense industry is a high-value-added industry in which national technology plays an integral role. When one submarine (1,800 tons, about 450 billion won) is exported, the economic effect is the same as that of the export of 24,000 mid-size cars. Similarly, a high-performance guided missile costs billions of won and its export would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For the past 50 years, the defense industry has been fixated on the domestic market to meet the goals of developing and acquiring weapons systems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major consumer. The current domestic market is saturated, leading to an erosion of the industry's growth engines. To overcome this, exports of the defense industry are being highlighted. However, as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defense industry export market is also intensifying, the need to foster and support the defense industry and explore new markets for defense industry exports has to be further emphasized. In this paper, the export environments of Peru and Brazil's defense industr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overseas business trips to these countries conducted in October 2021. The aim was to explore new export markets in South American countries and specifically to open-source analyze the export environment of Peru and Brazil. A SWOT analysis was conducted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cooperation with Peru and Brazil involving the defense industry and defense technology were established. Policies related to defense industry exports were proposed to pioneer new markets in South America.

Keywords : Peru, Brazil, Defense Industry, SWOT, Pioneering of New Market, Defense SME

*Corresponding Author : Ki Ho Shin(Korea Research Institute for defense Technology planning and advancement)
email: skh@krit.re.kr

Received March 16, 2023

Revised April 7, 2023

Accepted May 12, 2023

Published May 31, 2023

1. 서론

방위산업(이하 방산)은 국가 기술력이 총괄적으로 집약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잠수함 1척(1800t급, 약, 4,500억 원)을 수출했을 때 경제적 효과는 중형차 2만 4천여 대를 수출했을 때와 동일한 파급력을 나타내며[1] 고성능 유도미사일 한 발은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 이러한 방산은 지난 50년간 수요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위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내수 중심의 시장구조에 고착화 되었으며 현재의 방산 내수시장은 포화되어 성장 동력이 잠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산 수출이 부각되고 있으나 국제 방산 수출시장 또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방산 수출을 위한 방산 육성 및 지원, 방산 新 시장 개척의 필요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방산 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마련'이라는 목표 아래 맞춤형 수출지원 사업과 더불어 구매국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등 방산 수출 방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2]. 이를 위해 방산 新시장 개척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방산 수출은 정부 간 거래(G2G: Government to Government) 성격이 강하고 구매 주체가 정부이며 수출 상호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거래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방산 수출성과 달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개별 기업이나 동종업계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방산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여 2006년에는 세계 17위에서 2020년에는 세계 6위로 성장하였다[3]. 하지만 세계 100대 무기 생산업체(방산기업) 중 우리 업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50위), KAI(63위), LIG넥스원(73위), (주)한화(85위) 4개 업체에 불과하여[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방산기업 육성과 이들 기업이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新시장 개척 등 기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주관으로 시행한 페루, 브라질 대상 시장개척단 활동(방산 新시장 개척 및 국방기술교류 협력) 결과와 페루, 브라질 방산 관련 공개 자료를 토대로 페루, 브라질 방산 수출환경 분석, 방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위한 SWOT 분석 및 추진전략 수립과 협력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페루, 브라질 대상 방산 수출 정부 정책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2. 방산 수출 환경 분석

2.1 페루

2.1.1 사회·정치·경제 분야

페루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서 2020년 기준 인구는 약 3,192만 명으로 세계 44위 규모이고 국토는 128만㎢로 한반도 6배가량의 면적을 지닌 국가이다. 국방예산 및 군사력 규모로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은 약 21.6억 달러이고 이는 코로나 19 및 정부부처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소규모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력은 2020년 기준 상비군 81,000명(육군47,500명, 해군 24,000명, 공군9,500명)과 준군사조직 77,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5,6]. 광물 자원이 풍부한 페루는 지난 10년간 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남미 국가 평균을 상회하는 4.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봉쇄조치로 -13.9%의 경제성장률로 역대 최저치 기록하였다[15]. 2022년 12월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디나 볼로아르테 대통령(여성, 법조인)은 좌파 성향의 정치인이며, 좌파 정권 승계에 따른 기존 우파 성향의 軍 주요인사 교체 등에 따라 既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가 약해지는 등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Table 1은 페루의 정치와 외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5,7].

Table 1. Political and Diplomatic Status in Peru

Spec.	Contents
Poli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litical System: Presidential system Presidential system(5-year term, re-appointment is not allowed, but re-election is possible) · Current President: Pedro Castillo · Presidential Term: '21-'25(Begins in July '21)
Diplom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suing pragmatic diplomacy with the US and China · Close cooperation with left-wing governments in Latin America(Mexico, Argentina, etc.)

新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 친화적·대외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중에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경제활동(규모, 기간, 업종 등)에 제한이 없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등 외국인 우대 정책을 적극 시행 중에 있다.

2.1.2 국방·방산 분야

페루는 국방 분야 관련 주변 분쟁국(에콰도르, 칠레

등)과 전면전 대비보다 자국 내 테러, 마약 소탕, 재난재해 대비 작전능력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페루는 대테러, 대마약 작에 중요한 차륜형 장갑차, 공격기, 헬기 등을 해외 국가로부터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페루에 既 전력화 된 KT-1, 다목적 지원함 등 한국 방산제품에 대한 만족으로 K방산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우수성을 인식하고 있다. 페루 국방예산은 2020년 기준 약 21.6억 달러이고 무기체계 획득예산은 약 5% 수준인 1.2억 달러 규모이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자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예산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무기체계 획득방식은 계약 규모에 따라 획득절차 및 정책이 상이하다. 계약금액 1.3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획득방식, 1.3만 달러이상 3,400만 달러 미만의 중규모 획득방식, 3,4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획득방식으로 구분된다. Table 2는 페루의 무기체계 획득절차 및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8].

Table 2. Peru Weapon System Acquisition Procedures and Policies

Spec.	Contents
Small (less than \$130,000)	· Figure out requirements for each military, direct purchase for each military * Planning and preparation (requirement identification and bid approval) → Implementation of procurement procedures (supplier arrangement, competition, conclusion of supply contract) → Contract
Medium (less than \$34 million)	· Raise each military requirement → Establish a technology research group → Submit a technical report → Select a supplier → Contract * Organization of the technical research group: a representative of the armed forces required for a weapon system, a representative of the Joint Command, and one person appointed by the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arge (over \$34 million)	· Raising military demands → Establishment of a technology research group → Formation of a committee commissioned by the 'Director of Defense Materials Division' → Selection of suppliers → Contract * Consists of a total of 5 members, including 2 fro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1 from the Joint Command, and 2 from the military that requires weapons systems

무기체계 정비 등 유지보수의 경우 기반환경 및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페루에서 보유중인 상당수 무기체계는 자체 정비가 제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KT-1의 경우 수리부속·부품 및 정비 능력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2.1.3 방산시장 잠재력 평가

과거 칠레, 에콰도르와의 분쟁으로 인해 양 국가를 잠재위협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두 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 칠레의 경우 영유권 분쟁으로 10년간 전쟁을 하였고, 에콰도르는 국경선 지정 문제로 1900년대 초반부터 3차례 분쟁이 있었다. 최근 페루에서는 정부군과 게릴라(샤이닝 패스(Shining Path) - 미국과 EU의 테러단체 목록에 포함된 테러집단) 간 전투가 있었다. 2021년 5월 아푸리막(Apurimac) 계곡과 에네(Ene)강 지역 근방에서 정부군과 게릴라 간 전투로 16명 사망자가 난 사건이 되겠다[9]. 이를 계기로 페루에서는 테러집단을 소탕하기 위해 무기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소요 잠재성과 연관이 있다.

2.1.4 對페루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 및 이슈

현재 대한민국에서 페루를 대상으로 방산 분야 수출 주요사업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차륜형 장갑차, 경공격기(FA-50), 해군사업(다목적 호위함 등)이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이다.

첫 번째, 차륜형 장갑차 사업은 페루 육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301대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페루 차륜형장갑차 사업 관련 국내 참여업체는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이며 현재 주관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2021년 11월 초 한국에 우호적 성향을 가진 육군총사령관(호세 알베르토 비스카라 알바레스 육군대장)이 경질되고 신임 육군총사령관(윌터 호라시오 코르도바 알만 육군대장)으로 교체되어[10] 기존 차륜형장갑차 사업에서 가지고 있었던 한국 우위는 불명확한 상태가 되었다.

두 번째, 경공격기(FA-50) 도입 사업은 노후 공격기를 대체하기 위해 24대의 新공격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전 정부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출을 추진하였으나 新정부 수립 및 미국 정부의 무기수출 금지 조치(페루 영공통제법 제정에 따른 제재 조치)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답보상태이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호위함 6척과 경비함 4척을 도입하는 해군 사업이다. 해군 사업은 新정부 출범 및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예산 축소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Table 3은 페루 대상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을 나타낸 것이다[11].

Table 3. Major defense export promotion projects to Peru

Spec.	Size	Company	Status
Wheel armored vehicle	30 Units / \$0.43 Billion	Hanhwa Defense, Hyundai Ro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bmitted RFI for wheeled armored vehicle business in July 2020 Scheduled to select a negotiating company from among the submission countries
FA-50 Attack Aircraft	24 Units / \$9.4 Billion	K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 E/L disapproval due to enactment of Peru Airspace Control Act * Necessary for diplomatic resolu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Peru
Multipurpose Frigate	6 Ships / \$14 Billion	Posco Intern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1st RFP submission in November 2018. Business is currently suspended due to budget problems
Patrol Combatant	4 Ships / \$0.88 Billion	STX 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pleted delivery of 6 out of 10 ships (1st project). Delayed project for 4 ships of the 2nd project * New government launch(July 2021) and impact of COVID

2.1.5 주요 착안사항

新정부 출범에 따라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이 다소 불투명해 진 상황이다. 좌파 정립 수립에 따른 軍 주요인사 교체로 기존에 우리가 구축했던 인적 네트워크가 약화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한 기류 생성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경기진작, 보건의료 지출 확대 등으로 국방 분야는 우선은 아니나 잠재 수요를 대비한 페루 주요인사와의 교류와 지속적인 접촉은 반드시 필요하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더불어 페루는 2017년 자연재해, 통화 평가절하 등으로 2019년 이후 무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나 앞서 언급한 대테러戰 등을 위해 무기체계 도입소요는 있으며 예산 또한 책정(2020년 기준 연간 1.2억 달러)되어 사업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를 위해 新정부의 관심분야(보건의료 등)를 중심으로 산업협력, 후속군수지원 등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2 브라질

2.2.1 사회·정치·경제 분야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서 2020년 기준 인구는 약 2억 1,171만 명으로 세계 5위 규모이고 국토는 약 851만km²로 한반도 37배가량의 면적을 가진 국가이다. 2020년 기준 국방예산은 약 335억 달러이고 2017년 이후 국방예산이 증액되어 2019년에는 국방예산이 2010년보다 3.5% 높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5월에 발표된 새로운 지출 동결조치는 국방예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런 지출동결 조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더욱 악화되었으며, 2020년 중반에 1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경제활동에 상당한 침체를 유발하였기에 추가적인 정부 예산 삭감조치 가능성과 함께 국방예산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하였다. 군사력은 2020년 기준 상비군 381,500명(육군190,500명, 해군 59,000명, 공군69,500명)과 준군사조직 395,000명, 예비군 1,34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5,6]. 중남미국가 중 최대 인구와 최대 영토를 보유한 브라질은 세계 8위의 경제대국으로 최대 소비시장이다. 하지만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사망자 급증(세계 3위)과 확산에 따라 2020년 -5.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12]. 브라질 前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아마존 난개발 시행 등으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유럽연합은 아마존기금 지원을 위해 브라질의 파리기후변화 협약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12]. 또한, 2022년 10월 당선된 룰라 現 대통령(3선)은 이러한 아마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 노력 중이고, 경제 부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3].

2.2.2 국방·방산 분야

풍부한 자원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군사력(약 30만 병력) 보유와 국방 관련 다양한 軍 실험장(미사일 등) 운용, 세계 3위 항공사(엠브라에르社)를 보유한 중남미 방산강국이다. 과거에는 세계 4위의 방산 수출 국가였을 정도로 방산분야가 발전한 국가이다. 또한, 주변 국가의 큰 마찰이 없어 획득소요는 적으나, 아마존 환경 보호 등 자국 내 현안문제와 관련 무기체계(항공, 감시정찰, 사이버 등)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아마존 기금은 약 7,250억 원 정도이고 유럽연합(EU)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보호를 위해 운용 중에 있다[14]. 국방예산은 2019년

기준 약 250억 달러, 획득예산은 약 7% 수준인 16.9억 달러 규모이다. 코로나 19로 2022년까지는 국방예산은 일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획득체계는 국방부에서 방산조달 방향 및 절충교역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각 軍은 획득 및 조달사업을 주도한다[8]. 이는 과거 한국과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참고로 국방부 방산장비사무국(SEPROD, 이하 방산국)에서 국방부 방산조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획득정책 통제와 방산제품에 대한 수출입 관리 등을 시행한다. 브라질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국방부와는 제도 및 정책측면에서 교류, 각 軍과는 획득사업 관련 접촉 및 우호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2.2.3 방산시장 잠재력 평가

자체 우수기술력 보유 및 자국 내 방산 업체가 다수인 관계로 他 중남미 국가 대비 방산시장 잠재력은 다소 떨어지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통상정책 핵심국가로 중남미 他 국가 진출을 위해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방산 관련 아마존 환경보호 및 감시를 위한 무기체계 수요 예상된다. 브라질의 경제력 및 군사력 규모, 아마존 생태환경 보호 등 고려 시 충분한 무기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2.4 對브라질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 및 이슈

현재 대한민국에서 브라질을 대상으로 방산 분야 수출 주요사업은 전차개발 사업이다. 브라질 육군의 노후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약 200대 도입이 예상된다. 참고로 브라질 육군사업 우선순위는 ① 국경과학화 시스템 구축(멕시코 지역), ②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사업(既 추진 중), ③ 전차개발 사업 순이다. 우선순위 고려 시 전차개발 사업의 경우 3~4년 뒤 추진이 예상된다. Table 4는 브라질 대상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을 나타낸 것이다[11].

Table 4. Major defense export promotion projects to Brazil

Spec.	Size	Company	Status
Tank development project	about 200 units	Hyundai Rotem	· November 2020 K2 tank RFI submission request received official letter · Feasibility study for tank introduction(K2 tank)

2.2.5 주요 착안사항

브라질과는 2006년 국방·군사·과학기술·방산협력 등 포괄적 협력 협정(양국 국방차관)을 체결하여 상호 교류 초석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군사교류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태이다. 군사교류는 한 國軍 장교의 브라질 軍 교육기관 학생장교 및 민간대학 위탁파견 등이 전부이다. 브라질의 우수한 국방기술력과 자국 내 방산 기반환경 고려 시 국방기술과 방산협력을 통해 브라질을 교두보로 중남미 방산시장 개척 등 진출 확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과의 방산군수 공동위 개설 및 기술교류 실무 협의체 구성, 정례화 추진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우호관계 기반 조성이 급선무로 판단된다. 브라질과는 방산 및 기술협력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낮은 단계부터 협력하기 위해 방산군수공동위 등 실무협의체 개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3. 방산 및 국방기술 협력 추진방안

3.1 페루

3.1.1 SWOT 분석 / 추진전략

페루와의 방산 및 국방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우선 페루 방산의 SWOT를 분석하였다. Fig. 1은 페루의 방산 SWOT를 분석한 결과이다[11,15].



Fig. 1. Peru Defense Industry SWOT Analysis

3.1.1.1 기회활용(SO 전략)

2021년 10월 페루 출장 간 페루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부가 2022년 조직 개편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1]. 국방기술부는 한국의 방사청과 유사한 조직으로 한국 선진 획득체계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자국의 획득체계

개선을 추진하려 하였고 이를 위해 국기연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였다.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한다면 페루와 방산 및 국방기술 협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산 실무협의체 구성 / 추진을 통해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의 점진적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기연 주도의 방산 및 국방기술교류 협의체 등 추진으로 '교류의 끈'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1.1.2 워협회(II)(ST 전략)

페루 출장[11]간 확인한 사항으로 2020년 한국과 페루 간 '포스트파나마스' 조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시 한국측의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자료가 스페인 등 제3국 업체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었다. Fig. 2는 포스트파나마스 사업 이슈 관련 내용이다[11].

- Post-Panamax Project: A project(KSP)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to support the strengthening of SIMA's capabilities so that ships passing through the Panama Canal can be maintained at SIMA, a Peruvian state-run shipyard(SIMA), to analyze
- KSP: Policy establishment and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and ship repair industries as a Peruvian industry and trade investment policy advisory project.(19. 11. ~ '20. 7.)
 -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of Korea, acted by KOTRA
- Problem: The Peruvian state-run shipyard(SIMA) leaked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data provided by Korea by providing them to Spanish and Italian defense companies without Korean consent.
 - Possibility of returning to disadvantages for Korea as a result, such as the use of project estimates
-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devise countermeasures such as documenting related matters such as Korea's core technology between Peru and defense industry and technical cooperation to prevent leakage to other countries.

Fig. 2. Post-Panamax Business(2020) Issues

이처럼 국방기술, 노후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기술·정보교류 등) 협력 시 우리의 핵심기술 등 관련 사항들이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류 협력 간 '대외 유출 금지 등을 포함한 문서 정례화'를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주재국 국방무관 및 현지 무역관과 협업 下 페루 軍 관련 인사 Pool 확대 및 既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연되거나 미흡한 페루 방산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국방무관 및 무역관(KOTRA)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방 및 방산 관련 변화되는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對페루 주요 방산 수출 추진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도출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3.1.1.3 기회 포착(WO전략)

페루와 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브라질과 더불어 남미 他국가(제3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3.1.1.4 약점 최소화(WT전략)

실무협의체 화상회의(웨비나 등)를 통한 지리적, 심리적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3.1.2 협력 추진방안

낮은 GDP 및 방산기술 역량 고려 시 페루는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측면의 방산물자 / 기술 무상양도를 기대하기 때문에 제품 수출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페루 시장 성장 유도 및 K방산 브랜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강구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품수출뿐만 아니라 수출품 품질보증, 후속군수지원, 승조원훈련, 인도적 지원 등 페루 新정부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5는 對페루 방산 교역을 위한 凡정부 차원의 절충교역, 연계무역 통해 인도적 지원소요 발굴 방안을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Table 5. Ex) Discovering humanitarian aid needs through government-wide trade off-set and linked trade

- ① Review of trade feasibility in a way that allows payment of import prices with minerals and agricultural products, which are Peru's main resources
- ② Excavation of demand for the transfer of culling ships and firearms owned by government departments such as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eruvian Military

3.2 브라질

3.2.1 SWOT 분석 / 추진전략

브라질과의 방산 및 국방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브라질 방산의 SWOT를 분석하였다. Fig. 3은 브라질의 방산 SWOT를 분석한 결과이다[11,12].



Fig. 3. Brazil Defense Industry SWOT Analysis

3.2.1.1 역량 확대(SO전략)

브라질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활용하여 방산시장 연관 산업(사이버 분야 등) 진출을 도모해야 하고 공무출장 결과[11] 등 공개 자료 분석을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실무협업체 구성 및 추진을 통해 방산분야 등 교류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2.1.2 강점 활용(ST전략)

브라질 현지화 가치의 하락된 시기를 활용하여 브라질 국방부 방산국(SEPROD) 및 공군 항공과학기술국(DCTA)과 항공 기술협력(실무협업체 구성, 정례화) 등 관련 방산 및 국방기술기획 분야 브라질 진출 모색해야 한다.

3.2.1.3 기회 포착(WO전략)

브라질 방위산업진흥회(ABIMDE, 이하 방진회)와 협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브라질과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페루와 더불어 남미 他국가(제3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해야 한다.

3.2.1.4 위협 대응(WT전략)

브라질과의 실무협업체 화상회의(웨비나 등)를 통한 지리적, 심리적 약점 보완하고 방산 및 국방기술기획 협력 활성화를 위해 현지화 가치 하락에 대비한 民·官 실무협업체 구성 등 장기적 대응방안 수립과 협력이 필요하다.

3.2.2 협력 추진방안

브라질 방산 능력 고려 시 완제품 수출보다는 방위사업청을 주관으로 한 방산공동군수위를 개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즉, 방산군수공동위 및 기술교류 실무 협업체 구성, 정례화 추진을 통해 상호 신뢰 및 우호관계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후속으로 공동개발을 통해 중남미 국가 진출 등 사업영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방산 협력 관련 정부기관(국방부 등) 외 민간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브라질 방진회와 협업 하 각국 방산전시회 상호 사절단 파견, 우수 방산기업 소개 / 홍보 등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각종 방산전시회(ADEX, DX-Korea 등)와 브라질의 Expo ADESC(2023년 4월, 브라질 방진회 주관) 행사 시 상호 사절단 파견 및 교류 추진 등이

있다.

브라질과의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통한 'Win-Win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호 비교우위 제품을 식별하여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위해 입찰제도, 관련규정, 참여방법 등을 브라질 국방부 등 軍 관련부서와 방진회를 대상으로 정보를 요청하여 획득 후 브라질 진출 관심 국내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국방기술기획(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목표로 국기연 차원의 실무협업체 정례화, 실무진간 기술교류를 위한 화상회의, 상호방문을 통해 교두보 마련 및 향후 남미 제3국 등 他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동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미 국방 및 방산 최강국 브라질을 교두보로 남미 방산시장 확대 즉, 新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

3.3 정책 발전방안

페루는 우리와 활발한 방산협력 교류 관계에 있으며 콜롬비아와 더불어 한국의 중남미지역 최대 방산협력 국가이다. 양국은 2010년 6월 방산 군수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10년 이상 공고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6년 체결한 국방·군사·과학기술·방산협력 등 포괄적 협력 협정 외에 특별한 방산협력 교류가 사실 상 없다.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는 페루와 콜롬비아 등을 제외한 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아시아 무기체제 경험 및 인지도가 낮아 진출하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미 현지에 상주하며 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수요가 없는 신규시장의 경우 초기 업체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페루, 브라질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 앞서 언급한 사실을 실제로 체감하였다. 국내의 한화, LIG넥스원 등 대부분 방산 기업들은 브라질 등 남미 新시장 개척에는 초기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해당국가 방산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진출을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방산 新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가지 예로 정부 주도의 '중남미 시장개척을 위한 공동지사화 사업'을 신설하여 남미지역 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공동지사' 설립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비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면 新시장 개척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국기연에서 수행중인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예산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남미국가 대상 新시장 개척을 위해 既 시행한 페루, 브라질 공무 국외출장 결과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페루, 브라질 방산 수출환경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페루와 브라질 대상 방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위한 SWOT 분석 및 추진전략과 협력 추진방안을 수립하였고 남미 新시장 개척을 위한 방산 수출 관련 정책을 제언하였다. 현재의 방산 시장은 미국,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에게 잠식되어 진입하기에는 상당한 제한요소가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방산 선진국들의 관심이 적은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新시장을 개척하여 우리의 방산 역량을 강화시키고 수출 성과를 창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방산 관련 대한민국이 보유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미약한 분야는 페루, 브라질과 교류협력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新시장 개척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방산수출 200억 불 달성’이라는 現 방산 수출목표를 넘어 ‘방산수출 세계 4위, 수출 300억 불’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기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제시한 방안들의 정교화를 통해 남미 대상 특히, 페루와 브라질 관련 방산 수출이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또한,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방산 수출 다변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References

- [1] <https://blog.naver.com/dapapr/221702008226> (accessed June 5, 2022)
- [2] Yoon Seok-yeol Government's 110th National Policy Project, pp.178, May, 2022. From: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1283> (accessed June 5, 2022)
- [3] The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Top list TIV tables. From: <https://armstrade.sipri.org/armstrade/page/toplist.php> (accessed June 5, 2022)
- [4] The SIPRI Arms Industry Database From: <https://sipri.org/sites/default/files/SIPRI-Top-100-2002-2020.xlsx> (accessed June 5, 2022)
- [5] "2020 World Defense Market Yearbook," Defense Technology and Quality Agency, pp.141-181, pp.291-341, 2020.
- [6] "2020 World's Military Forces (Annual Assessment

Report on the World's Military Forces and Defense Economy)," Korea Defece Intelligence Command (KDIC), pp.604, pp.648, 2021.01.08.

- [7] "2023 Strategy to Enter Peru", KOTRA, pp.4-12, December 2022.
- [8] "2020 World Defense Market Yearbook," Defense Technology and Quality Agency, pp.300-304, 2020.
- [9]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7239680> (accessed June 5, 2022)
- [10] <https://www.kotra.or.kr/kodits/board/read?topMenuNo=3&boardManagementNo=24&boardNo=965&levl=3&menuNo=13> (accessed June 5, 2022)
- [11] "Report on the results of business trips to Peru and Brazil," KRIT, December 8, 2021.
- [12] "2021 National Entry Strategy - Brazil", KOTRA, pp.3-32, December 2021.
- [13] "2023 Strategy to Enter Brazil", KOTRA, pp.4-12, December 2022.
- [14] <https://futurechosun.com/archives/60245> (accessed June 5, 2022)
- [15] "2021 National Entry Strategy - Peru", KOTRA, pp.2-14, December 2021.

신 기 호(Ki Ho Shin)

[정회원]



- 2001년 2월 : 울산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 2007년 11월 : 영국 뉴캐슬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 (석사)
- 2001년 3월 ~ 2021년 2월 : 대한민국 육군 정보통신 장교
- 2021년 3월 ~ 현재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정보통신, 사이버, 방위산업, 방산수출, GVC